

* 원상화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세계시민의식과 세계시민교육
	1. 아들러 개인심리학 관점에서 세계시민의식
	2. 세계시민교육
	III.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무용교육
	1. 무용에서의 신체움직임
	2. 세계시민교육과 무용교육의 역할
	IV. 결론
	참고문헌

* 본 연구는 한국무용교육학회 제 29회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원고를 보완하였음.

**극동대학교 초등특수교육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 2022.07.21.

논문심사일 : 2022.08.09.

게재확정일 : 2022.09.04.

The rol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dance education

Won, Sang-hwa · Far East 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the importance of coexistence and individuality according to each personality is recognized, and a society where individuals can pursue a happy life is ultimately pursued. Baed on such individual needs, it is now time that a sense of community for the common good beyond the borders of countries and reaches the world, recognizing it as one global village. Our task is to establish the role of the individual as well as the society for which the pursuit of personal happiness coincides with the direction for happiness for all of humanity. This study seeks to clarify the role of dance education in the wider context of global citizenship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this end, the role of dance education was examined by analyzing the key elements for cultivating citizenship, as suggested by Oxfam and UNESCO, and comparing them to identify similarities to the goals and methods of dance educa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many of Oxfam's core elements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educational effects of aesthetic experience shared similarities.

As suggested by UNESC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means “Learning to Live Together,” and “Teaching Respect for All”. This in the dimension of experience and preception, not knowledg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role of arts education, which methodologically involves firsthand experiences, and among them. Dance education will be a strong field that is noteworthy in terms of cultivating holistic personality, the basi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key word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dance education, aesthetic experience

<주요어> 세계시민교육, 무용교육, 미적경험

COVID-19로 인한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 되면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지난 2년간은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위기 상황 속에서 세계시민의식 실종을 경험한 시간이기도 하다. COVID-19는 사람들 간의 관계 및 지역과 국가 간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불건강한 사회적 현상이 각 나라마다 커뮤니티마다 나타나기도 했다. 개인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가 두드러지기도 했으며 경제, 보건, 백신, 교육 등의 중요 인프라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공하면서 발발한 전쟁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현 시점에서 벌어진 상상하지 못한 전쟁은 세계대전에 대한 악몽과 냉전시대의 시작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점점 더 세계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세계는 하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지구촌 시대를 외쳤던 우리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국가 및 개인을 막론하고 극성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은 절망과 좌절과 포기 of 풍조를 극복하고 오히려 세계시민의식과 세계시민교육 현 주소에 대한 성찰과 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5년 세계교육포럼(2015 World Education Forum)에서 2030년 까지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로 세계시민교육을 의제로 채택하였다(UNESCO, 2016). 한국 또한 세계교육포럼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주요한 교육의제로 상정하였고 국내 교육과정에도 반영하게 되었다(교육부, 2015).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각 국가 간 상호의존성은 그 의미를 더하고 있고, 각 국가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가 증가되면서 국가를 뛰어넘는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인식이 세계인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적 소양으로 되어가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기후, 에너지, 핵, 전염병 등의 문제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나 반면에 세계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글로벌적인 문제들은 어느 한 두 국가의 역량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규모를 넘어가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얻게 되었다. 첫째는 우리가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COVID-19의 전파를 차단하고자 각 국은 국가 간 경계를 차단하려는 부단한 시도를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 의미는

현 세계는 엄청난 실물의 교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국경의 통제
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며, 더구나 그것이 무형의 정보에 관계된 것이라면 실제적
으로 벽이 없다고 보아야한다. 둘째, 위기는 이기주의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백신과
방역물품을 둘러싼 각 국의 이전투구 및 소위 선진국들의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무
질서와 물건 사재기 현상은 우리 스스로를 놀라게 하였고, 개인과 국가, 국가와 세
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왜 세계시민교육인가? 무엇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인가? 세계시민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기존의 구분기준인 성
별, 인종, 세대 간의 가시적 분류와 함께 가치관 성향 등과 같은 비가시적인 기준들
이 계속 더해져 가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개념은 국가주의 시민의
식을 넘어서 세계인으로서의 세계시민의식을 강조하며 현대를 관통하는 크나큰 사조
이다. 하지만 동시에 각 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갈등 또한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전 세계가 보이는 움직임이 바로
그 증거이다. COVID-19는 선진국들에서도 국경을 걸어 잠궜지만 결국 의료 시스
템이 붕괴하여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을 보였다. 또한 오미크론의 변
이 종은 주요 20개국에 백신 89% 독점한 백신의 불평등 배분이 낳은 예고된 위기
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경향신문, 2021.11.28.). 세계적인 위기상황, 위협의 문
제 있어 이기주의는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기주의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뿐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상호의존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인류 공동
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위기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의식 함양은 현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계시민의식과 세계시민교육의 현 주소를 고찰해보고 그에 있어 무용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II 세계시민의식과 세계시민교육

1. 아德勒의 개인심리학 관점에서 세계시민의식

COVID-19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각 문화권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서구문화권에서는 마스크 의무착用に 대해 개인의 인권 침해관점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동양 문화권에서는 큰 거부감 없이 마스크착용이 안착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것은 세계시민의식을 논할 때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성찰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름에 대한 이해와 인정의 유연성 확보는 건전한 세계시민의식 발달의 일차적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를 바탕으로 추구해야 마땅한 보편적 가치, 인류를 위협하는 글로벌 위기상황의 극복 등을 위한 초국가적 참여로 그 방향성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시민의식의 첫 출발은 ‘나’에서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며 ‘공동의 선’을 위한 개인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행동을 수반하는 시민의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건강한 나와 나에 대한 정체감은 국가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체감이 곧 세계시민의식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나’, 바꿔 말하자면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아德勒의 개인심리학에 기초하여 본 논지를 풀어보고자 한다.

아德勒의 개인심리학의 핵심은 관계중심의 이론이다. 아德勒의 개인심리학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개인들이 어떻게 관계하고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德勒의 ‘건강한 인간’은 총체적인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 사회 안에서 책임감 있게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아德勒가 인간을 이해하는 두 가지 핵심 관점이 있다. 첫째는 개인의 건강한 생활양식을 통한 성장이고, 둘째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이 건강한 목표를 기반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관점이다. 즉, 아德勒의 개인심리학에서 개인은 사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인간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개발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생활양식을 형성할 수 없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으

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의 첫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이다. 부모와의 관계의 성공 여부가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게 된다. 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관심은 세계시민의식 함양의 첫 단계일 것이다. 즉, 세계시민의식 함양은 한 인간이 부모와의 성공적인 관계를 통한 긍정의 경험이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고 그것이 세계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아들은 사회적 관심이 결여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공동체의 목표추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있다. 아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삶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아들 개인 심리학에서의 건강한 인간상은 개인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결여된 열등감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움직이고 이는 인생 목표설정을 혼란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삶으로 연결된다. 인간은 개인을 넘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을 가질 때 우월성을 경험한다. 아들의 개인심리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한 인간상을 기반으로 세계시민의식 함양 과정을 고려할 때,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교육은 단기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인간의 총체성의 이해에서 출발하여 개인의 성장과정과 함께 사회문화적으로 전체적인 시간체계에 대한 이해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의식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참여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공동체에서의 공동의 선과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는 개인이 소속감을 경험하게 하고, 이는 개인의 역할을 공동체 맥락에서 인식하도록 하는 공동체의식이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역공동체를 통한 우월성의 경험은 세계시민의식으로 이어지고 인류의 ‘공동의 선’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시민양성의 기반이 된다.

세계시민의식 함양의 중요성과 함께 세계시민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으나 왜 우리는 더욱더 양극화로 나뉘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Appiah, K. A.(2003)는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이 함께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공동체 활동이 세계시민의식 함양의 기초가 된다는 관점과 함께 특정 공동체의 결속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관점도 있다. 이에 아들의 개인심리학에서 4-5세에 형성되는 개인생활양식 형성의 주 역할자인 부모의 역할이 큰 의미를 갖는다. 부모의 역할을 통해 배양된 따뜻한 사회적 관심은 건강한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주제는 심리학 교육학 등 인간이해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실천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시민의식은 유엔, 유네스코, 옥스팜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세계

시민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논의 되고 있다(이윤진, 김남숙, 2020). 또한 국내에서도 공교육 체계의 교과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세계시민교육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틀러의 인간과 사회를 이해한 관점이 어느 맥락에서 반영되고 실천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은 세계를 지구촌 즉,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공동의 선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협력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틀러가 개인과 사회가 공동체의 선을 위해 상호작용 하는 건강한 인간상에 있어 사회가 개인의 문화권을 초월한 세계로 그 공간적 범위가 확장한다고 하는 것과 관련된다.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공간적 범위의 확장에 대한 시행 주체들의 관심의 제고가 중요하며, 개인과 국가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세계가 함께 연결하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나아가기 위한 목표가 제시된다.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교육내용과 방법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2015년 제 2회 세계시민성 교육 유네스코 포럼(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에서 세계시민교육 모델정립을 위한 세계 공동선(global common goods)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을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능동적 역할을 스스로 떠맡으며 세계의 어려운 문제들에 맞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한경구 외, 2015:38, 재인용)고 기술하고 있다. 즉,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이란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경구, 2017:23, 재인용). 이를 기반으로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을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학습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른 학습자의 특성(UNESCO, 2015)을 제시한 내용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기준

〈그림 1〉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인지적 영역에서는 지역, 국가, 세계차원의 이슈와 상호연계성 및 이에 대한 분별력과 분석력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정서적 영역에서는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소속감의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간의 상호연계방식에 대한 내용이 있다. 행동적 영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세계시민교육은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너와 우리’ 더 나아가서 인류라는 소속감을 발달시키고, 공동체의 공동의 선 달성을 위한 구체적 행동방안에 대한 제시가 그 핵심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영국 옥스팜은 2006과 2015년 세계시민교육의 교과과정과 개념의 틀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Oxfam, 2015). 영국 옥스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시민의 정의를 정리하자면 세계 속에서의 나의 역할 이해, 다양성존중과 가치이해, 세계 역동이해, 사회 정의를 위한 행동, 공동체 의식과 참여, 공동체의 목표에서 협업, 책임 있는 행동의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분석하면 결국 나-너-우리에 대한 이해와 성찰 그리고 공공의 선을 위한 공동체의 목적을 그 핵심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옥스팜의 세계시민정의의 의미

〈그림 2〉의 옥스팜의 ‘세계시민 정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보면,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발전과 안녕을 위한 적극적 참여방법을 경험하게 하여 교육을 통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세계인으로 성장시킨다. 유네스코는 이미 1997년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보고서(유네스코21세기세계교육위원회, 1997)에서 학습의 핵심 원리로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을 제시하였다.

국내 세계시민교육의 동향을 보면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서 ‘교육 2030’으로 세계시민교육이 상정되었다. 교육부(2015)에 따르면 대통령 기조연설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르치는 세계시민교육 확산’이 공표되며 2030년에 그 성과를 전 세계에 공유한다는 과제가 주어졌고, 이에 세계시민교육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공교육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아쉬운 점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이 대부분 단순 정보전달 및 일방향성 강의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피교육자들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방법론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성을 바꿔서 보고, 듣고, 느끼고,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정으로 구성하고 학습 동기유발과 유지를 위한 다양한 체험형 교수방안에 대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의 출발은 자기이해이다. 자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시작된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할 때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그러한 개인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의 방법론이 구성되어야 한다. 소통형 참여과정으로 학습 과정을 운영한 다든지, 개인과 공동체의 내적특성과 외적특성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여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중심의 방법론을 도입한다든지, 인간존중 관점이 방법론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조합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은 단기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 대상자들의 전 생애 주기 동안 실천해야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모든 참여주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키워드를 형성한다.

다음은 세계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심미적 감성역량, 창의적 사고역량과 의사소통역량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예술교과 중 초기 인간발달의 핵심인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 심미적,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무용교육의 역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Ⅲ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무용교육

1. 무용교육에서의 신체 움직임

무용교육에서 신체는 '나-자아' 발달의 출발점이다. 무용이 교육으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점은 18세기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자'의 자연주의 이론이었다. 자연주의 이론은 교육 분야의 새로운 변혁을 제시하였고, 무용계에서는 왈츠의 탄생으로 무용이 내면세계의 표현예술로 발전하는데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1900년대는 의학의 발달과 함께 신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문화권의 만남을 통해 유럽 전통의 신체에 대한 개념이 개혁을 맞는 시기로서, 무용에서도 미국의 모던댄스, 독일의 표현무용이 탄생하는 시대였다.

신체는 감각하고 느끼면서 외부세계(환경)를 수용하고, 조정하며 상호작용의 관계를 가진다. 즉, 인간의 신체는 자유로운 표현의 매개체이며, 표현하는 신체는 개인의 신체를 넘어 사회와 소통하는 신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아들러는 신체행동의 근원을 우월추구라고 보고 아래에서 위로,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나가려는 욕구로 보았다. 마음은 삶의 방향을 상상하고 몸은 이것을 현실에서 실현가능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인간 삶의 원리를 이해하였다. 즉, 운동이 향해가는 점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의 기능이지만, 동시에 몸은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마음이 결정한 목표는 몸을 통해서 그 실행 가능성 여부가 인식되고 계속되는 상상에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한다고 보았다. 아들러는 심리가 신체의 특정한 증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이러한 가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가설이 확실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아들러의 심리학 해설 '마음과 몸(설명환역, 1987:58-81)'에서 '몸에 자신이 없는 열등감은 인간 발달의 모든 면에 반영되고 신체를 사용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좋아 하지 않게 된다(설명환역, 1987:73)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의 심리이해는 '마음과 몸'의 통합적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신체에 대한 이해의 확장은 무용교육에도 영향을 미쳤고 창작 무용 영역이 넓혀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무용교육은 신체와 함께 리듬감, 공간구성, 미적 체험을 통한 창의적 표현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예술교육관점에서 창조성, 미적감각, 예술적 표현능력, 감상능력, 정서순환 등의 전인적 인격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용교육은 인간의 신체를 매개체로 움직임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움직임을 통한 자기에 대한 지각은 심신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또한 오감을 통한 감각활동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표현하고 지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세상이 소통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와 같은 과정은 자신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확장되고 나에 대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해와 성장을 통해 인격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인간은 누구나 확장하고, 뻗어나가고, 발달하고 성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발달한다. 즉,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등 발달영역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은 성장한다. 무용교육은 인간 발달을 좀 더 즐겁고 신나고 생동감 있게 하는 원동력 되어주는 영역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무용은 오감의 감각기관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표현능력을 신장시킨다. 표현하는 과정은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력이 수반된다. 이에 무용교육과정은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조화와 통합을 돕는다. 즉, 무용은 자신과 사회와 연결된 자신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심신의 조화, 자기이해 및 타인이해의 과정을 경험하게하고 궁극적으로 인격적 성장과도 연관된다. 정리해 본다면 무용은 신체를 매개체로 나에 대한 나를 위한 표현의 과정이고, 여기서 나는 사회 속의 나로 나에 대한 표현이며 세상과 소통하는 나의 의미를 가진다. 무용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원리를 중심으로 전인적 인격 형성을 목표로 한다.

2. 세계시민교육과 무용교육의 역할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세계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선을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는 부모와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생활양식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호한 또래관계, 더 나아가 사회속의 나에 대한 긍정적 경험들이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양질의 베이스를 두고 글로벌 차원에 있어 인류를 위한 관심과 능동적인 역할 수행의 기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의 모든 주제 및 전 분야와 관련이 있다. 무용교육과도 당연히 연관이 있다.

무용교육은 신체와 함께 리듬감, 공간구성, 미적체험을 통한 창의적 표현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영역이다. 무용교육을 통해 피교육자는 자기를 표현하고 환경과 대상과 소통하며 그 과정에서 창조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은 교육 참가자가 지적, 정서적, 실천적 관점에서 그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미적경험의 교육적 효과는 Oxfam의 세계시민교육 핵심요소와 연관되는 부분이 많다. 그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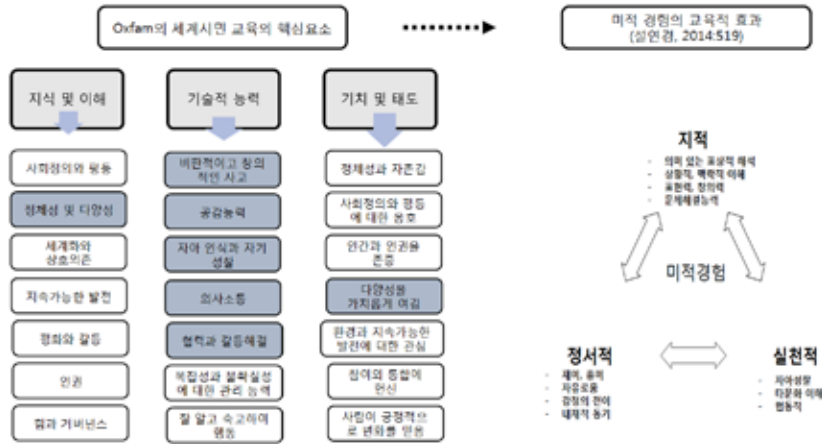


그림 3. Oxfam의 세계시민교육 핵심요소와 미적경험의 교육적 효과

Oxfam의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요소와 미적경험의 교육적 효과내용을 비교한 결과 많은 부분 일치하였다. 그것은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요소 증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예술교육에서의 미적경험교육을 채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체의 움직임을 매개체로 하는 무용교육이 세계시민교육 핵심요소 증진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용이 신체의 움직임을 매개체로 한다는 점은 인지적 영역에서 주로 운영되는 세계시민교육의 방법론적 확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루소가 언급한 인간의 본성인 자기애와 동정심, 그리고 아들러 개인심리학에서의 인간관을 종합해 볼 때 세계시민교육의 시작은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 필연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은 전 생애를 걸쳐 진행되는 결과 아닌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장기간으로 인한 교육적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무용교육에서의 신체이해는 곧 인간의 본성 이해의 핵심 요소이며 신체와 심리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무용교육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이해를 신체표현활동을 통해 성취한다. 그런 점에서 무용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의 긴 기간으로 초래되는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즉, 신체표현활동은 감각영역에서 인지적,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영역과 연계되어 그 내용을 구성하고 비교적 단기의 교육목표와 평가체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학습영역과도 그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 본 내용은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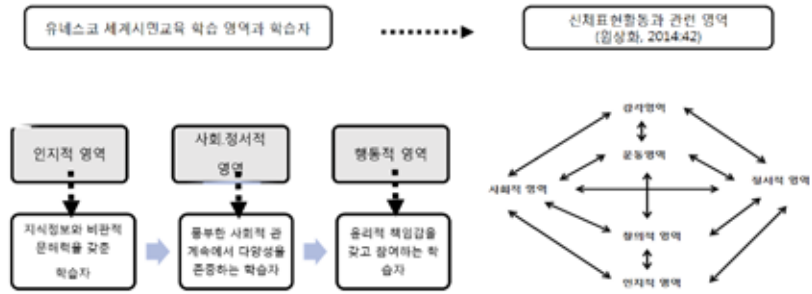


그림 4.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학습 영역과 신체표현활동 관련영역

〈그림 4〉의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학습영역 중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과 제시된 학습자 역량은 무용교육 신체표현활동 관련영역과 그 맥을 같이한다. 무용교육의 신체표현활동은 감각, 운동, 사회, 정서, 인지영역이 함께 작동하여 신체를 통한 창의적 표현활동이 이루어진다. 즉, 신체 기본 움직임의 기초기능을 통해 자신이 이해하는 자기와 사회를 표현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미적 태도 배양은 창의성 있는 생활태도와 연관되고 이는 세계시민교육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에서 무용교육의 역할은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신체를 통한 자신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신체와 신체움직임 그리고 춤에 대한 이해, 심미적 감성의 발달을 통한 사회와 다양한 환경에 대한 비판적인식과 이해, 자신만의 개성과 공동체 안에서의 나에 대한 이해의 증진이다. 그러한 이해는 세계시민으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용교육은 신체의 표현활동이 그 중심에 있는 영역으로 정서 체험중심의 활동이다. 무용교육을 통해 인지중심의 활동에 치우친 세계시민교육 방법론을 보완하고 흥미와 즐거움 성취감 그리고 생동감 있는 생생한 교육 현장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신체이해로 시작되는 무용교육은 정체성과 사고의 유연성의 기초가 되고, 이를 통해 공동체에서의 각자의 역할 이해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육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1세기는 각 개인의 개성에 따른 개별성과 함께 공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원상화, 2020). 이제는 개인의 욕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동의 선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국가를 넘어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의 과제는 개인의 행복한 삶의 추구가 곧 인류의 행복을 위한 방향이며, 이를 위한 사회의 역할과 개인의 역할인식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시민의식과 이에 대한 교육의 큰 맥락 속에서 무용교육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이 공교육권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낮아지고 과정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세계시민교육은 단시간에 그 성공여부를 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특성 상 일정의 단기간에 성과를 요구하는 분위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방향의 주입식 강의 형태나, 불충분한 교육 자료 등도 그 원인을 구성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떨어뜨려 심리적 장벽을 쌓게 하고 나아가 각 개인의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영역으로 치부하게 하고 있다.

이에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서 인간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인간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와 그에 있어 무용교육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다양한 교과영역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무용교육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무용교육은 미적 경험을 중심으로 인지, 사회, 정서 등의 다양한 발달영역이 동시에 작용하는 영역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기반들을 공유하는 영역이다. 무용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신체움직임을 중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개인과 세상의 관계성을 성찰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얻게 된다. 무용에 있어 우리의 신체는 사회와 문화적 현상이 체화되어 표현하는 신체로서 신체움직임 자체가 나와 너의 그리고 우리의 표현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문화에 대한 정체성, 다양성과 다름에 대한 수용능력, 공동체의 연결성 그리고 미적 감수성을 통한 환경에 대한 이해증가의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옥스팜과 유네스코가 제시한 핵심요소들과 무용교육 목표와 방법과 유사한 점을 분석하여 무용교육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Oxfam의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요소와 미적경험의 교육적 효과내용을 비교한 결과 많은 부분 일치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019년 COVID-19가 세계를 강타했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재도 전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와 혼돈 상황에서 인간의 이기주의가 그 동안의 공동의 선을 위한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닐까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었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의 그 본질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점이 제시된 시점이기도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유네스코가 강조해 온 'Learnign to Live Together, Teachihng Respect for All' 이다. 이는 얕의 차원이 아닌 느낌과 지각의 차원이다. 이에 이를 위해 방법론적으로 직접경험하고 체험하는 예술교육의 역할에 주목해야 하고, 그중 무용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의 기반이 되는 전인적 인성함양 차원에 있어서도 반드시 주목해야 할 유력한 분야일 것이다.

- 교육부(2015a), 2015 세계교육포럼 공식 폐회,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2019.08.10), 교육부 홍보 담당관실 보도자료.
- _____(2015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
- 류재민, 이정연(2020), “국내외 교육과정에 반영된 초등학교 음악, 미술, 체육의 심미적 감성역량”,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한국초등교육 31(4)**, 99-118.
- 원상화(2014),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서 신체표현활동 의미와 방향탐색”,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4)**, 29-51.
- _____(2015), “장애아동의 창의성교육을 위한 통합적 예술교과 운영방안”,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6(3)**, 5-20.
- _____(2020),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을 위한 독일 심리운동 이론과 실천토대”,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1(1)**, 25-47.
- 유네스코21세기세계교육위원회(1997), 김용 주 외(역, 1997),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보고서, 서울시: 오름.
- 이윤진, 김남숙(2020), “세계시민의식 관점에서 본 지역공동체 시민활동가 경험의 의미교육”,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문화연구 26(3)**, 587~610.
- 한경구, 김종훈, 이규영, 조대훈(2015),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방안**,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한경구(2017), “국제이해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글로벌 교육패러다임의 진화 그리고 현장의 혼란”,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국제이해교육연구12(2)**, 1-43.
- Adler, A., Orgle, H.(1987), 설영환(역, 2005), **아들러 심리학 해설**, 서울: 선영사.
- Appiah, K. A., 오인영(역, 2003),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한계 논쟁**, 서울: 삼인.
- Oxfam(2015),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 London: NO202918.
- UNESCO(2015),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서울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 _____(2016), **교육2030 인천선언과 실행계획-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향해**,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_____(2019), **세계시민교육과 민족주의적 관점의 부상: 성찰과 나아갈 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경향신문 (2021.11.28.), “예고된 위기” 오미크론 변이, 백신이기주의에 경중.